

[보도자료] 쿠팡, 충북 진천에 200억 투자해 서버허브 구축 총청권 전역 익일배송 기반 마련

2024. 11. 20.



- 연면적 5500평 규모, 400명 이상 직고용 내년 1월 운영 시작 계획
- 지역민 우선 고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공급하고 청년 정착률 상승 기대

2024. 11. 20. 서울 -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가 충청권 '로켓배송' 권역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에 서버허브(물류센터에서 배송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중간 물류시설)를 구축하고 400여명을 직고용한다. 쿠팡 진천 서버허브는 충청권 전역 익일 로켓배송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쿠팡의 배송 자회사 CLS는 20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및 진천군과 업무협약(MOU)을 맺고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일대에 쿠팡 진천 서버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혔다. 협약식에는 홍용준 CLS 대표, 송기섭 진천군수, 황현구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.

진천 서버허브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5500평 규모로 운영되며, 400명 이상을 직고용할 계획이다.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충청권 전역 익일 로켓배송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.

서버허브가 자리잡을 초평면에 CLS가 400여명의 신규고용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.

청년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. 쿠팡이 2030 청년들에게 인기높은 서비스인 만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, 지역 청년들의 정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일례로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쿠팡 금양물류센터의 2030 청년 직원 비중은 약 60%에 달한다.

홍용준 대표는 "쿠팡은 진천군민을 최우선 고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"이라며 "특히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진천군이 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했다.

송기섭 진천군수는 "CLS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"며 "대규모 고용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며 로

켓배송 확대로 군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”고 말했다.

황현구 정무특별보좌관은 “CLS의 이번 서브허브 투자는 4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물류 중심 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번 투자는 쿠팡이 올해 초 밝힌 물류 투자 계획에 포함된다.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해 전국을 로켓배송 가능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올 초 밝혔다. 이의 연장선상에서 진천을 포함해 대전, 광주, 경북 김천·칠곡·울산 등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해 1만명 이상을 직고용할 방침이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